



300자로 hiphot 섭취하는 스낵뉴스

연봉 두고 야구 선수와 구단이 싸우면?

한국야구위원회(KBO)는 KBO 규약 제75조 [중재신청]의 2항에 따라 지난 10일 오후 6시에 연봉 중재 신청이 마감됐으며 신청 구단 및 선수가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봉 중재 신청이란 구단과 선수 사이에 연봉과 옵션 등 금전에 관한 사항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 구단 또는 선수가 KBO 총재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봉 중재는 20일 이내에 결론이 나오며 승패가 뚜렷하게 갈린다.

이 제도는 1984년 해태타이거즈 투수 강만식과 MBC청룡 투수 이원국을 시작으로 99회의 신청이 있었다. 하지만 중도 계약 타결 등의 이유로 자동 취소된 경우가 많아 실제 조정 위원회가 열린 경우는 21회에 불과하다.

연봉 중재는 선수보다는 구단 측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도 연봉 조정 위원회는 21회 중 19회를 구단의 손을 들어줬고, 선수 측이 이긴 것은 2002년 LG트윈스 내야수 류지현과 2021년 KT위즈 투수 주권뿐이다.

연봉 중재에서 패배한 대표적인 선수로는 1991년 롯데자이언츠 투수 김시진과 1992년 삼성라이온즈 포수 이만수, 1994년 해태타이거즈 투수 조계현, 2001년 한화이글스 외야수 송지만, 2002년 LG트윈스 외야수 이병규, 2011년 롯데자이언츠 내야수 이대호 등이 있다.

반면 류지현과 주권은 구단을 상대로 승리하며 희망하는 연봉을 받을 수 있었다. 류지현은 구단 제시액인 1억9000만원 대신 2억2000만원의 연봉을 받았고, 주권 역시 구단 제시액인 2억2000만원 대신 2억5000만원을 손에 쥐었다.

다만 모든 선수가 연봉 중재 신청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KBO는 소속 선수로 활동을 개시한 날로부터 만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선수는 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열두 번째 우승을 이룬 KIA타이거즈의 연봉 협상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KIA에서는 4년차 미망인 내야수 김도영과 투수 최지민, 투수 황동하, 투수 광도규가 정상 등극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특히 월간 10홈런-10도루를 시작으로 전반기 20홈런-20도루와 내추럴 히트 포 더 사이클(안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차례대로 기록), 쿼터플 트리플(3할 타율-30홈런-30도루-100타점-100득점) 등 대기록을 달성하며 올해 KBO 리그 MVP와 골든글러브를 거머쥔 김도영에게 시선이 쏠린다.

김도영은 KBO 리그 4년 차 최다 연봉과 역대 최다 인상률을 동시에 노리고 있다. 4년 차 최다 연봉은 이정후의 3억9000만원, 역대 최다 인상률은 하재훈의 45.6%(2700만원→1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1억원을 받은 김도영의 올해 연봉이 4억5560만원을 초과한다면 동시에 경신이 가능하다.

김도영은 연봉 중재를 신청할 수 없어 협상의 키는 KIA 구단에 있다. 다만 KIA 구단은 김도영에게 역대급 활약에 걸맞은 대우로 합당한 협상에 나설 것을 일찌감치 시사했다.



#SnackNews #야구연봉중재 #한류빈기자 #박지은편집디자인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설 연휴가 토요일인 25일부터 그다음 주 목요일인 30일까지 6일간으로 늘어났다. 덕분에 설 특수를 노리던 극장가가 호재를 맞게 됐다. 연휴에 개봉하는 영화 '귀신경찰'은 베틀을 맞은 뒤 어설픈 초능력을 갖게 된 경찰 아들 현준과 그의 어머니 수미의 이야기로,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난 고 김수미의 유작이다. 지난 2015년 'K-오컬트'의 진수를 보여준 검은사제들의 속편 '검은수녀들'은 악령에 사로잡힌 소년을 구하기 위해 허락되지 않은 의식을 치르는 수녀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송혜교와 전여빈이 주연으로 활약한다.

진일보

dalgona

높은 성원에 베이킹 소다를 더해 만든 한국 과자. 평평한 원반 형태로 판매하며 허트, 벨 등의 간단한 모양이 세겨져 있음

'dalgona', 'tteokbokki'.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한국 문화와 관련된 7개의 단어가 실렸다. 지난해 12월 신규 단어 업데이트를 통해 '달고나(dalgona)', '떡볶이(tteokbokki)', '노래방(noraebang)', '막내(maknae)', '형(hyung)' 등 7개 단어가 사전에 포함됐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 'K-드라마(K-drama)', '떡볶이(mukbang)' 등 26개의 단어가 대거 포함된 후 3년 만의 등재다. 이번 7개 단어들은 음식, 호칭 등 한국 문화에 관련된 내용들로, '오징어게임' 등의 인기로 외국에서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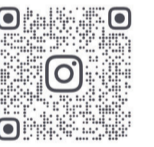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최악의 산불이 발생해 수십만명이 대피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각) 기준 AP통신과 CNN 등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LA 산불로 최소 11명이 사망했다. 지난 7일 오전 LA 해안가 퍼시픽 펠리세이즈에서 시작된 산불은 최대 속도 160km/h의 국지성 돌풍 '샌타 애나'를 타고 급속히 번지며 대응이 불가능할 정도로 확산했다. 바람을 탄 불씨가 시내와 민가로 옮겨가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같은 날 오후 캘리포니아주 이튼과 허스트에 이어 8일 오전 우들리 등 7건의 추가 산불이 발생해 주변 일대를 집어삼키고 있다.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며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박대성(31)에게 법원이 "이유도 없이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범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살인 및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26일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변 인기척까지 확인한 뒤 10대 A양의 뒤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